

가톨릭 교토포교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책을 위하여
미사등, 집회를 행할시 지켜야할 요건

2020年5月16日

가톨릭 교토포교구

✠바로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교토포교구에서는、각 블록에서、주일미사(말씀의 전례)·집회·강좌등을 재개할 경우、정부가 공표한「새로운 생활양식」에서의、감염방지의 3가지 기본：①신체적거리의 확보、②마스크착용、③손씻기와、「3밀」의 회피(밀집、밀접、밀폐)를 지키기위해、이하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미사등, 집회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성당의 상황, 구조에 따른 단계적인 미사등의 재개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전반

- ① 성당·집회실은、사용전에、
하이포아 염소산소독액·알코올 소독액등으로、문의 손잡이·의자·
책상등을 소독한다. 사용후에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행한다.
- ② 성당·집회실의 출입구에는、참가자를 위하여 소독용 알코올등을
비치하고、확실히 소독을 행한다.
- ③ 성당입구의「성수반」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성당·집회실은、밀폐시키지않고、
장소의 크기에 따라서 일 년 내내 환기를 시킨다.
- ⑤ 참가자는、1) 마스크를 착용하고、2) 간격을 될수있는대로
주위 2m를 띄우고(앉는 좌석을 지정하는 방법등)、 3) 비말감염을
방지하기위해、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대화를 삼가한다.
- ⑥ 몸의 상태가 불안한 고령자、 기저질환 (당뇨병、
심질환、만성폐색성호흡질환 또는 천식、항암제치료·면역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그리고 감기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미사참가를

삼가한다.

- ⑦ 집회 (강좌, 주일학교등) 은, 1 시간 이내로 한다.
- ⑧ 집회시에는 음료수를 제외하고, 식사의 제공, 회식을 동반하는 파티등은 행하지않는다.

2. 미사의봉헌과 성체배령에 대하여

- ① 미사 중의 제병과 포도주(물)을 봉헌하지않는다.
- ② 제병과 포도주는 사전에 제단 가까운곳에 준비해둔다.
- ③ 제병은, 성함에 필요한만큼 넣고 뚜껑을 덮어서 준비한다. 미사중에도 뚜껑을 덮어둔다.
- ④ 「평화의 인사」 는, 악수나 포옹은 하지않고,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눈다.
- ⑤ 사제, 말씀의 전례사회자, 성체분배자는, 성체분배전에 손을 소독한다. 성체를 받을 신자들도 성체를 받기 전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리해본다.
- ⑥ 사제는, 성체를 거양하고,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말하고, 회중은 일제히 「아멘」 이라고 대답한다. 개별적으로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사제는 무언으로 성체를 분배하고, 신자들도 무언으로 성체를 받아모신다.
- ⑦ 성체와 성혈의 양형영성체는 불가능하다.
- ⑧ 입(혀)로 성체를 받아모시는 것은 삼가하고 손으로 성체를 받아모신다.
- ⑨ 미사 (말씀의 전례) 의 시간을 짧게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말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 성가를 부르지않는다. 다만, 화답송과 알렐루야에 한해서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3. 병자의 성체분배에 대하여

병자의 성체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블럭담당사제의 지도에 따라 상기의 감염되지 않을 요건을 지켜야한다.

이상